5. 정체성 Identity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싱글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메리(Mary): “존, 내가 학교에 왔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잘 맞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교사진에 속해 있고, 우리 반 학생들의 선생님이야. 그런데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은 결혼한 부부인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 나는 추파를 던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고 있지만, 잔(Jan)은 내가 그런 추파를 던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존(John):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나는 학교에 있는 건 좋은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 선교단체에 세 가족이 있는데, 대부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 그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토론하는데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거든.”

이렇게 싱글 선교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체성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사는 은둔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자기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얻게 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배운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상당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하며 살 때 깨닫게 된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미혼의 사도였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체포되었다. 바울이 자신을 군중에게 소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들을 살펴보자(행22:3).

- 나는 유대인으로(문화적 정체성),
-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그가 태어난 도시로, 이곳에서 그리스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 이 성에서 자라(예루살렘에서 제3문화자녀로 아람어를 배우고, 유대문화 속에서 사는 것을 배웠다),
-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유대인의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 (유명한 스승을 통해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고 그를 보낸 그리스도와 아나니아의 추종자가 되었다 (15절).
-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27절).

바울은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던 모든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떠나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살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 부모님이 율법학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 땅의 부모와 관련된 정체성도 잘 알고 계셨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문화에선 예수님이 1년 뒤, 13살이 되면 성인남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날 서구문화에서처럼 성인이 되기 위해 6년이 부족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성인이 되기 위해 몇 달만 있으면 됐다.

정체성 vs 역할 혼동

바울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10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어울리는지 모르는 시기를 겪는다. 이러한 싱글의 시기 동안에 청소년들은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 주장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는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동안 10대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지만, 문화는 여전히 그들을 어른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10대들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이 없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 어울리는지 혼란스럽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찾고, 사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정체성을 찾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정체성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된다.

할 수 없는 역할

청소년기를 지난 뒤로도 싱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배우자나 부모의 역할은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긴다.

- 남편. 정의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 아내.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 아버지. 일부 지역과 직업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현지 문화권에서는 다소 복잡한 문제다. 또 아이는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 어머니.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성에게도 복잡한 문제이며, 아이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역할을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약속 없이 함께 살려고 하며,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보통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선교사가 될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싱글 선교사들은 정체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다른 일반적인 역할을 찾는다.

- 일. 싱글 선교사들은 보통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는 단체에 소속된다. 그래서 싱글 선교사들은 단체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지 못한다.
- 공동체. 비록 대부분의 싱글 선교사들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장소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거의 머물지 않는다. 모국에 있을 때에는 후원을 얻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고, 현지 문화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들은 ‘집’에서 이웃을 만나지 않는다.
- 교회. 비록 싱글 선교사들이 그들을 파송한 모교회를 갖고 있지만, 그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국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멀리 떨어진 현지 문화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모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모국에서 싱글들이 배우자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종종 그들에게 가능한 다른 역할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런 역할을 또한 잘 맡게 된다.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취미 동호회를 만들곤 한다. 그 그룹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우정을 쌓게 되고, 각 개인의 결혼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 한 교회에 남녀50명 정도로 구성된 나스카(NASCAR)라는 주일 학교가 있다. 성경공부 전후에 나누는 대화는 차와 경주에 대한 것이다.
- 어떤 목사님은 젊은 사역자와 함께 폭풍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토네이도를 따라갈 때 그들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뜨개질이나 코바늘 뜨는 그룹이 있다. 바늘에 실을 꿰는데 결혼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한 지역사회에는 독서클럽과 정원 가꾸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싱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 주말을 친구들과 사냥이나 낚시를 하며 보낼 때도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쇼핑 하고, 여성을 위한 영화를 보며, 여자들끼리 밤을 보낼 때도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 내부든, 외부든 클럽과 취미동호회에 관한 목록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그룹에서 대화의 일반적인 주제는 그룹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므로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파견국가(사역지)에서 가능한 역할

싱글 사역자들이 섬기는 현지 국가에서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뺏는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클럽이나 그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게다가 그런 그룹들이 별로 없다. 특히 싱글 사역자의 모국어로 말하는 그룹은 더욱 없다. 그래서 정체성에 기여하는 다른 역할을 찾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역할들은 부모와 배우자의 다양한 역할에서부터 별로 관련 없는 역할까지 다양하다.

- **대부모.** 많은 기독교 교파들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대부모는 아이의 세례와 종교적인 교육까지 책임져 왔다. 남성 대부모는 대부(전통적인 의미로, '마피아의 대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 대부모는 대모다. 나이와 관계없이 싱글 사역자도 이런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
- **이모와 삼촌.** 선교단체의 다른 멤버들이 가족의 명칭으로 불려지고 가족의 역할을 한다. 부모나이의 미혼 남자들은 종종 '누구 삼촌'이라고 불리고, 미혼의 여성들은 종종 '누구 이모'라고 불린다. 때때로 나이 든 남자와 여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린다.
- **영원한 절친**(BFF:Best Friends Forever). 문자텍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요즘 사용하는 단어는 영원한 절친(BFF)이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늘 당신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과 친밀한 필레오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한 개인의 자산이다.
- **멘토링**. 멘토를 받든지, 하든지 이런 멋진 관계는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
- **동료**. 동료 선생님이나 의사들과 같이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관계가 가장 의미 있다. 그러나 스카이프나 무료 통신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된다.

기독교인들과 인연을 맺어가는 것은 아주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엄마'나 '언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그들의 가족이 된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